

본문 : 야고보서 1 장 2-4 절

제목 : 시험 가운데 인내하라

1. 보냄을 받은 자들

예수님의 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 세계 각처에 흩어져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디아스포라 편지를 보냅니다. 학자들은 이 편지가 AD 45-60년 경에 쓰여진 것으로 추정합니다. 로마의 기독교 박해가 심한 때입니다. 흩어져 지내던 디아스포라들은 종교적인 핍박과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기들이 어쩔 수 없이 고향을 떠날 수 밖에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야고보는 편지 서두에 그들이 흩어져 살아가는 이유를 이스라엘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시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그 거대한 이야기와 디아스포라들의 삶을 연결시켜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들의 이야기가 아브라함을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리고 이집트 땅의 노예로 신음하던 그의 후손들을 부르시고 약속의 땅으로 보내신 하나님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과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셨나요? 그들만 복 받고 그 복을 자손만대 누리라고 그러셨나요? 부르심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부름의 목적은 보냄에 있습니다. 세상 속으로 보내시기 위해 선택하여 부르신 것이죠.

저의 어린 시절 교회들마다 유행하는 노래들은 “죄 많은 이 세상 내 집 아니요.”,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맘 없어요.” 이런 류의 노래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 차 있고, 불타 없어지기 때문에 예수 믿고 이 땅을 잘 떠나는 것이 교회 다니는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하늘 위, 상상 속 어디에 있는 하늘 나라로 떠나는 이야기였던 것이죠. 하지만 성경 속 하나님의 이야기는 죄악 된 세상 속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내진 이야기들입니다. 떠나는 이야기가 아니라 보내진 이야기입니다. 성경의 이야기들은 보냄을 위해 부름받았다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뜻과 목적이 있으셔서 여러분을 저 세상 한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디아스포라로서 낯선 이국땅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2. 시험을 즐거워하세요

죄 많고 어두운 세상 속으로 보내졌고, 이민자이자 나그네로 살아가기 때문에 시험에 빠질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야고보는 문안인사 직후 곧바로 시험의 주제를

꺼냅니다. “나의 형제 자매 여러분, 여러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2 절)” 여러 가지(various) 시험에 빠지는 것은 당연합니다 라고 말하네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 동안 겪었던 다양한 시험들은 어쩌면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라 하지만 어찌 시험이 즐거울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야고보는 더할 나위 없이 즐겁게 그 시험을 맞이 하라고 권면합니다. 2 절에서 제 마음을 꾸는 단어는 ‘여러 가지’입니다. 시험의 모양이 다양하고 성격도 다채롭다는 말입니다. 이민자로 외국에서 살아가고 계시니 이것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이곳에서 우리가 마주치는 시험의 종류들이 참으로 다양합니다. 언어 때문에 오는 스트레스는 기본이고 문화적인 차이에서 발생하는 시험도 있습니다. 신분의 문제는 미국사회의 이민자들에게 갈수록 버거운 시험꺼리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ICE 요원이 로체스터에 나타났다는 소식만 들어도 괜히 부담이 되죠. 경제적인 압박도 심합니다. 지난 주 한 분과 이야기 나누는데 집안의 배수관이 고장이 나서 플러머를 불렀더니 2 천불 넘게 청구서가 나와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 살아갈 수 밖에 없는 현실의 구조입니다. 자녀들이 학교에서 겪는 은근한 인종차별들은 고국에서는 겪을 필요가 없는 시험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보호 받지 못하고 기댈 곳이 없다는 불안감과 고립감은 디아스포라들의 근본적인 시험입니다. 야고보는 당시 디아스포라들이 겪는 종합 선물 세트와 같은 시험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형 예수님께서 가르쳐준 기도에도 이 시험이 언급됩니다.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Bring us not into temptation- 마 6:13)”, temptation 으로 번역되는 헬라말 Peirasmos ($\pi\epsilon\rho\alpha\sigma\mu\circ\delta$)가 동일하게 쓰이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3 절의 시련(trial, test)로 쓰이는 dokimion ($\delta\omega\kappa\mu\iota\omega\nu$)이란 말과는 다른 말입니다. 시련이란 dokimion 은 성경에서 딱 두 번 쓰이는데 벤전 1:7 의 금을 불로 ‘단련한다’는 표현에 쓰인 말입니다. Temptation 과 test 는 그 성질과 목적에서 확연히 차이가 나는 말입니다. 시험은 부정적인 의미이고 시련은 긍정적인 뜻이지만, 반갑지 않고 부담스럽긴 마찬가지죠. 그런데도 야고보는 시험과 시련을 더할 나위 없이 즐거워 하라고 합니다. 도대체 왜 야고보는 시험을 즐거워 하라는 것일까요?

3. 하나님의 포이에마

시험이든 시련이든 현재 상황에만 초점을 맞추면 힘들 수 밖에 없고 실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시험과 시련이 만들어갈 목적, 그러니까 미래적인 목적을 알게 되면 즐거워지게 된다는 것을 야고보는 알았던 것 같습니다. 야고보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라는 해석의 틀을 사용해야 한다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네러티브의 중요한 틀은 창조, 타락, 언약, 구속, 교회, 새 창조입니다. 이 이야기의 큰 흐름은 인간이 망가뜨려 놓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의 모습으로 회복되고 갱신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불완전할지 모르지만 미래적인 창조의 완성을 기대하는 이야기가 바로 하나님 나라의 네러티브입니다. 미래에 이뤄질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과 완성을 일컬어 ‘새 하늘과 새 땅’ 또는 ‘새 창조’라 부릅니다. 이 하나님의 회복의 이야기에서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의 동역자로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형상을 따라 인간을 만드셨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네러티브에서 인간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하나님의 대리인(agent)입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있는 하나님의 형상은 망가지고 어그러졌습니다. 하나님의 구속과 회복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인간을 온전하게 회복하고 완성해 가는 것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고 완성되어가는 인간들과 함께 새 창조의 과업을 함께 해가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2 장 10 절에서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선한 일을 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For we are God's workmanship)” 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이라 칭합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를 함께 완성해갈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를 masterpiece 라 부릅니다. 미켈란젤로가 다비드 같은 조각 작품을 만들 때는 큰 돌을 가지고 자신이 만들 형상을 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 따라 돌을 깎아내기 시작하죠.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해 이곳 저곳 깎아내다 보면 작품이 만들어져 가게 되죠. 완성된 작품은 아름답지만, 그 작품이 완성되기 까지 길고 긴 다행의 시간이 있어야만 합니다. 작품이란 단어는 ‘포이에마 ($\piοίημα$)’인데 Poem(시)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시로 만드셨다는 겁니다. 시는 쉽게 쓰여지지 않는 법입니다. 시가 쉽게 쓰여지는 것은 윤동주 같은 분들이나 그런 것이지 시는 어렵게 써지는 법입니다. 진이정 시인이 <시인>이란 시에서 “시인 토씨 하나 찾아 천지를 돈다 / 시인이 먹는 밥 비웃지 마라” 고 했습니다. 시가 쉽게 쓰여지지 않는 중노동이라는 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시인이 쉽게 밥벌이를 한다 오해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을 다 돈 것 같은 수고로 시 한 편이 나온다는 말이죠. 어떤가요? 마스터피스, 포이에마는 그냥 만들어지지 않는 걸 아시겠습니까? 깎이고 다듬어지고 연마되는 시험과 연단이 없이 포이에마가 완성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되기까지 하나님은 다양한 시험과 시련을 통해 우리를

깍아내 가시는 겁니다. 현재는 무겁고 아프지만, 이 시험과 시련을 통과한 미래의 내 모습을 바라볼 때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4. 온전하고 성숙한 사람

하나님이 꿈꾸시는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회복된 인간의 모습을 야고보는 온전함과 성숙함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4 절의 이 온전함과 성숙함은 야고보가 디아스포라들에게 편지를 쓰는 목적이자 야고보서 전체의 목적이 되는 말입니다. 완전하고(perfect) 온전하게(complete)되어 어떤 것에도 모자람이 없는 길이 있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조각가가 온전한 작품을 만들기 위해 다양한 도구들을 사용하듯, 하나님도 우리를 어떤 것에도 모자람이 없게 하려고 다양한 시험으로 온전함(wholeness)을 만들어 가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포이에마로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온전해져야 합니다. 마태복음 5 장 48 절에서 예수님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여라.” 라고 부탁하십니다. 완전함 또는 온전함은 하나님다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히 회복됨을 말합니다. 달리 말해 우리의 내면과 인격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온전히 성숙하여 회복된 모습을 온전함이라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예술품으로 살아가는 삶이 온전한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포이에마(작품)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는 가장 큰 목적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문이요 시작에 불과합니다. 이후에 기나긴 훈련의 여정이 그리스도인들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 기나긴 시험과 시련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완성되어 갑니다.

5. 온전함에 이르는 연료 인내

야고보는 온전함에 도달하는 길에서 인내가 계속 달려갈 원동력이자 연료가 된다 말합니다. 개스를 충전하여 개스를 태움으로 자동차가 먼길을 달려 목적지에 도달하듯, 인내는 우리를 온전함에 이르도록 도와준다는 겁니다. 인내라는 말은 '아래에서 지탱하다' 또는 '잘 지탱해 내다'라는 의미를 가진 말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근육을 만드는 보디빌딩에 관심을 갖고 힘쓰는 분들이 계십니다. gym 에 가보면 몸을 만드는 사람들은 위에서 내려 누르는 하중을 지탱해 내거나 그 하중의 방향을 거슬러 밀어내는 일을 반복합니다. 근육이 무게를 이겨내며 강해지듯이 믿음의 시련은 인내를 통해 그

원래 목적을 이뤄간다고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시험과 시련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에 압박을 줍니다. 우리는 그 압박을 지탱하고 인내하여 이겨냄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인내를 통해 마음의 근육을 단련하는 것이죠. 온전함과 성숙에 이르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시험과 시련을 인내해감으로 우리의 신앙과 인격은 온전해집니다. 다른 말로 시험과 성숙을 인내해 감으로 우리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해가는 것이지요.

우리말 성경에는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개역 성경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라고 번역되었구요. 헬라어 성경에서는 독특하게 인내에게 명령하는 표현입니다. "인내가 완전한 효력을 발휘하게 하라, 인내가 자기의 일을 끝까지 하게 하라"라고 해석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자동차에 타서 운전을 하지만 기름이 태워짐으로 자동차가 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온전함에 이르는 길은 인내가 끝까지 자기일을 할 때에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마음먹는다 하여 온전해 지는 것이 아니고 시험과 시련을 통과해 가며 발휘되는 인내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6. 부정적인 시험까지 선용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기 위해 버스에 올라탄 사람들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이 세상 속으로 보내진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회복시키고 구속하시는 그 위대한 이야기를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부르신 하나님은 그들을 세상 속으로 보내셨습니다. 디아스포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세상으로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온전한 회복의 이야기인 새 창조의 이야기의 일부가 되라는 이 부르심 때문에 우리는 흩어진 사람들입니다. 흩어 보내진 사람들은 시험에 노출될 수 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 합니다. 그 시험이 우리를 온전하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시험이 온다고 자동적으로 온전해 지는 것은 아니고 인내를 통해 온전해 집니다. 시험을 이겨내는 인내를 통해 온전해진 우리의 모습을 바울은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의 포이에마라 불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의 포이에마로 만드시기 위해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분은 연장과 도구를 통해 우리를 두들겨 패시기도 하고, 깍아 내시기도하면서 다듬어 가십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있다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온전하게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삶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우리 모두는 위대한 예술가이신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하나님의 작품들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예술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드러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험과 시련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정적인 시험이라도 그것을 선하게 이용하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내게 일어나는 부정적인 시험과 시련들 마저 선하게 이용하는 분이십니다.

지난 주 제게 감동이 되는 한 문장이 있었습니다. “God will take you where you do not want to go to produce you what you cannot produce by yourself.”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갈 수 없는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시키려고 하나님은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데려가시기도 합니다. 부정적인 시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것을 선하게 바꾸십니다. 시험과 시련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십시오. 그리고 인내가 자기일을 끝까지 하게 하십시오. 그리고 무슨 일이 일어나는 지 한 번 봐 보십시오. 인내의 과정을 통해 우리 가운데 어떤 성품이 자리잡는지 지켜 보십시오. 여러분 모두가 모든 것이 구비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성숙해 가길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 인내가 여러분 삶 곳곳에서 효력을 발휘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주간 인내를 통해 조금 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으로 변화되는 여러분의 삶이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그룹 나눔>

1. 오늘 본문에서 가장 마음에 와 닿았던 내용은 무엇인가요?
2. 세상 속에 보냄을 받은 자들은 시험을 겪을 수 밖에 없다고 야고보는 말합니다. 여러분이 최근에 직장을 포함한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겪는 시험과 시련이 있다면 나눠봅니다.
3.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작품(포이에마)로 만드시기 위해 시험(temptation)과 시련(trial, testing)을 허락하십니다. 나아가 시험과 시련 가운데 인내를 통해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고 합니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온전하지 못한지, 그리고 그 부분에 인내가 어떻게 유익을 줄 수 있을지 함께 나눠봅니다.